

기고

최명순



최근 정부의 '4대강 살리기'로 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이는 살아가 수 없다. 우리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되어있다. 즉, 생물의 생명현상도 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화학변화가 복잡하게 얽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생택퀴베리는 그의 저서 '인간의 대지'에서 "물, 너는 생명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다"라고 하여 물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다.

정을 이루는 반면, "망할 놈, 짜증나네, 죽어 버릴 거야" 같은 험악한 말을 들려주거나 하드 록(hard rock)의 시끄러운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는 어떤 결정을 이루지

물은 곧 생명이다

못하고 제멋대로 개진 모양을 보여주거나 일그러진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모든 물질과 감정, 생각은 파동으로 전달되는 데 이 파동이 물에 영향을 주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즉, 의식과 물질은 하나로 통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 돼, 나빠, 바보, 망할 놈" 등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몸속에 있는 물들이 모두 다 제대로의 결정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결

과는 그 사람의 부정적 언행으로 표출되게 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예로부터 우리 어머니들은 동틀 무렵 우물물(정화수)을 떠놓고 기도를 드리곤 하였다. 정화수란 이른 새벽에 처음 같은 우물물을 말하는데, 물의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어 주로 정성을 들이거 나 약을 달이는 데 쓰이며, 물의 으뜸으로 꼽힌다고 한다. 정성스레 기원을 올린 물인데 어떤 물들이 효험이 없으랴~ 또 우리 속담 중에는 '말 한마디로 천 냥

빛을 갠다'라든가 '말이 씨가 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등 말에 관한 속담들이 많다. 이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된다.

'말'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부터 긍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가능성을 한계 짓는 말이 나오게 마련이다.

게다가 부정적인 생각들은 종종 육체적인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의학적으로도 정신신체질환(pscho-somatic disorder)이라 하여 정신과 육체 간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에도 화를 내고 난 후엔 여지없이 목이 아프고 편도선이 부어오르곤 한다. 어떤 말을 하는가에 앞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내면의 표정을 살펴 스스로에게 건강하고 행복하며, 에너지와 열정으로 빛나고 있다고 상상하는 말, 기를 북돋아 주는 말을 반복하여 들려줌으로써 내 안의 결점이 부디 아름답게 맺히지도록, 그리하여 자신부터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면 우리 사회는 한층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

세계적인 자기개발 전문가이며 1회 강연료가 8억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성공학 강사 브라이언 트레이시(Brian Tracy)는 성공의 비결로서 "나는 나를 사랑한다"를 매일 20번씩 외우라고 하였으며, 우리의 박지성선수도 경기장에 들어설 때마다 "나는 최고의 선수다"라고 자기 최면을 걸곤 한다지 않는가.

<건강보협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시설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공약 반드시 지켜야

오늘 광주에서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이 열린다. 이날 기공식은 19개 전 구간 동시착공을 기념한 것으로, 지역의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 공사가 본격화됐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호남고속철은 완공시기와 노선을 둘러싸고 논란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당초 오송~광주 구간은 오는 2015년 완공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 및 경부고속철과의 협력성 등을 들어 2012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과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도 조기완공을 심도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통령이 된다면 호남고속철은 임기 중에 끝내겠다"며 2012년 조기완공을 약속했다. 심지어 "정부 예산이 부족하면 석유자금을 끌어올 수도 있다"고까지 했다.

정부가 출범한 이후 오송~광주 구간의 완공시기는 겨우 1년 줄어든 2014년으로 미뤄졌다. 대통령의 공약은 '헛구호'에 그친 셈이다.

정부는 2012년 조기완공 불가 이유로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 김병호 고속철 사업단장은 지난 2일 "완공시기를 앞당기려면 사업비가 더 투자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비 확충과 소요자금의 적기투자가 이뤄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결국 조기완공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조기완공 공약은 물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한 광주~목포 구간 노선과 완공시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호남고속철 공약이 '제 2의 세종시 공약(空約)'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호남고속철은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가기반시설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보완 시급한 '초광역권 4대 벨트 구상'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 2일 '초광역권 4대 벨트 구상'을 확정했다. 남해안을 비롯해 전국을 동해안과 서해안, 남북접경 등 4대 벨트로 나눠 동북아 경제 허브, 에너지관광 기지, 신산업 거점, 남북교류 중심지 등으로 집중 개발한다는 개념 내용이다.

그러나 초 광역권 구상은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남해안 선 벨트 사업은 지난 9월 전남·부산·경남이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한 내용을 그대로 니열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재원 마련도 곤란하다. 남해안권에만 27조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나 재원 확보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다.

남해안 선 벨트는 글로벌 관광·휴양지 구축 등 5개 분야 26개 사업을 담고 있다. 전남 지역 주요 사업으로는 영광~부산 기차 간 자전거 전용 도로 건설과 갯벌과 습지·강을 활용한 생태 관광 벨트 조성 등이 꼽힌다. 여기에 남서권에 조선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서고 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신소재산업 클러스터도 조성된다.

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역특화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광역경제권 등 지역발전 전략을 잇달아 발표해왔으나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거창한 청사진만 있을 뿐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이나 실행 계획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자칫 '세종시 물타기'나 내년 지자체 선거가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오는 2020년 남해안권 인구는 현재 870만명에서 900만명으로 증가한다.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은 현재 2만2천65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전체 지역총생산은 1천926억 달러에서 3천6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초광역권 구상 같은 중장기 밑그림도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야 한다.

無等鼓

"행복이 뭐냐?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게 최고의 행복인가? 그런데 풍요해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욕망하게 되는 것은 왜일까요?"

행차가 잘 달리는 현상들, 가전제품도 대형화를 치닫고 좀더 새로운 것을 찾게 한다. 그러다 보니 실생활에서도 부지불식간에 어플루엔자는 생활의 태도를 결정한다. 비누를 하나 사는데도 깨끗이 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비누가 자신을 아름답게 해주리라는 믿음을 사게 된다.

누구나 한번쯤은 해보지 않은 고민이다. "국가의 소아심리학자이자 방송인인 율리버 제임스는 이걸 어플루엔자(Affluenza)라고 설명한다. '풍요(affluence)'와 '유행성 질병(influenza)'을 합쳐 '부자 병'이란 뜻으로 만든 조어로 1970년대 초에 나온 말이다. 영어사전에도 여럿하게 올라 있다. 자본주의의 옹광로인 미국의 전형적인 사회 병이다.

어플루엔자는 욕구와 욕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오래된 것과 낡은 것에 불만을 갖도록 만든다. 또 소비만이 미덕이고 소비가 행복을 약속한다는 현상을 갖게 한다. 그러나 세상은 각박해질 수밖에.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은 없고, 결국 물질에 이끌린 인생은 미국의 전형적인 사회 병이다.

하지만 어플루엔자는 어느새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한국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박힌 질병이 되었다. 당장 우리 주변만 봐도 어플루엔자의 폐해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명품 백을 들지않으면 행세를 못한다거나 아파트 평수에 집착하는 세대들, 또 경차보다는 고가의 중

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폭주하게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 일이다. 좀더 자신을 되돌아보고 세태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것인치 성찰이 필요하다. 또 주변도 봐도 어플루엔자의 폐해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명품 백을 들지않으면 행세를 못한다거나 아파트 평수에 집착하는 세대들, 또 경차보다는 고가의 중



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폭주하게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 일이다. 좀더 자신을 되돌아보고 세태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것인치 성찰이 필요하다. 또 주변도 봐도 어플루엔자의 폐해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명품 백을 들지않으면 행세를 못한다거나 아파트 평수에 집착하는 세대들, 또 경차보다는 고가의 중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에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박철수



구약에서 다윗은 위대한 성왕(聖王)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다윗임금이 인간적 낙약으로 저지른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의 사자로 내몰아 죽게 한 죄는 인간도 하느님도 분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예언자 나단이 이를 꾸짖자 다윗은 무릎을 꿇고 '내가 죄를 지었소' 하면서 자신의 죄를 솔직

히러 시위 관계자들과 일부 시민들에게 형사처벌을 내렸습디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 대운하 사업의 전초전인 4대강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강을 살리는 게 아니라 아주 죽이는 것이라고'.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라도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사업이 삼천리 금수강산을 처참한 죽음의

백성의 소리 하늘의 소리

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다윗은 이제 하느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국가를 다스렸고 또한 백성들은 다시 없는 태평성대의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낙약함으로써 인 해 실수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길로 내몰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담수호인 시화호에 바닷물을 유입시키자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피가 들지 않고 한곳에 고이면 사람이 죽어가듯, 흘러야 할 물을 막으면 썩고 죽을 수밖에 무슨 수가 더 있겠습니까?

국민들 대다수가 강을 죽이지 말라고 파를 도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백성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진정으로 하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십시오. 지도자 및 명만이 똑똑한 게 아니고 또한 백성들이 무지렁이가 아닙니다.

'선거로 표를 받을 일 없으니 인기엔 연연하지 않겠다'는 유치한 생각과 말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백성들의 곁으로 다가 가십시오. 다윗왕처럼 '내가 죄를 지었소' 하고 솔직히 고백하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의 삶을 보듬어 주십시오. 가장 먼저 어서 용산으로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산수동 성당 주임신부>

염전 석면지붕 실태 파악해 교체 서둘러야

가끔 바닷가 주변으로 여행을 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천연염을 생산하는 염전들을 많이 본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소금을 생산하는 것이니 전국 각지 바닷가에 염전이 산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저기 슬레이트 지붕 조각이 떨어져 소금이 날리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워낙 오래된 창고여서인지 조금만 굽어도 석면섬유들이 굽혀 일어날 정도였다. 창고지붕들이 염전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비라도 오면 석면섬유들이 염전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또한, 비라도 내리면 그제 비와 함께 섞여서 흐르는 빗물을 타고 그대로 소금이 떨어져 쉬일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염전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 슬레이트를 교체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슬레이트와 석면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정부당국은 물론 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도 전국 염전의 슬레이트 지붕 실태를 파악해 하루빨리 교체해야 할 것이다. <임광복·광주시 남구 구소동>

기고

이영세



전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과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에 맞춰 도정 역시 해양 관광·문화와 지역경제 구축,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과 생태환경 보전, 생활복지의 선진화를 위한 지역개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이 지속적으로 디자인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잠재력과 결집된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전남지역 여성은 생활력

히 목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부분 내부 인력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공감, 여성과 지역 역량 강화라는 사명감과 의지의 뒷받침 것이다. 그러나 한 기관의 방향은 내부 성원들의 역량에만 오롯이 기댈 수 없다.

아직은 전남여성플라자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도정 전체에서 여성정책의 위상이 낮고, 시장중심의 경쟁논리로 여성 현안이 다루어지는 분위기, 주요 인사들의 취약한 성 인식

지역, 시대, 여성 요구의 결집

이 매우 강하고,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마다 어려움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많은 과정에 함께하며 변화의 중심에서 있었다. 경제적인 불안과 경쟁이 일상화되어 나타나는 위기적인 사회 경제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는 전남여성의 여장부, 대장부와 같은 대범함과 생명을 보듬는 여성의 부지런함과 삶의 의지를 조직하고 결집하여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등은 향후 전남여성플라자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과거에 비해 여성에 대한 법·제도 등의 형식적 평등 및 사회적 인식은 비약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화를 좁혀놓고 여대생의 취업은 남성에게 비해 훨씬 어려우며, 평균 임금은 남성에게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

전남여성플라자는 전남의 여성들이 모여서 자매애로서 사회의식을 높이고 숨겨진 역량을 발굴하고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의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복합공간이다. 전남여성플라자가 만들어질 당시 예산상의 이유나 여성관련 별도 건축의 불필요성 등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그렇기에 불구하고 5년간의 준비 끝에 전남여성플라자가 건립된 것은 그간 지역 여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적 지원기관의 절실함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듯 지역주민과 여성의 기대에 부응하여 탄생한 전남여성플라자가 온전

결합된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전남지역 여성은 생활력

이렇듯 지역주민과 여성의 기대에 부응하여 탄생한 전남여성플라자가 온전

주유소 계량기 편차 심해 소비자들만 피해

며칠 전 소비자 불만을 보도하는 TV프로를 보는데 기름 넣을 때마다 주유소들이 실제로는 표시량보다 기름을 적게 넣는다는 내용이였다.

그것은 그 적은 양이 법규상 오차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대부분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현재의 법적인 계량법상 허용하고 있는 오차는 20리터에 +150ml라고 한다. 법이 그러나 주유소들은 +(플러스)로 오차를 내는 게 아니라 모두다 -(마이너스)로 오차를 내면서 적게 넣어주는 것이다.

전문가를 동원한 측정팀이 시내의 한 주유소에 찾아가 기름의 양을 재는 용기의 공기를 빼낸 뒤 수평을 맞추고 두 차례 측정했다. 그랬더니 주유기엔 분명 20리터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116ml가 부족하게 나왔다. 이렇게 12곳을 점검했지만 온도 등의 외부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정량을 제대로 넣어진 곳은 12개의 주유소 중에 단 두 곳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처럼 엉터리로 기름을 넣어주는 주유소들이 즐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오수영·광주시 북구 운암동>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website.